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2009년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

- 소방방재청은 지난 17일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'09년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안,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, '09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안 등을 심의·의결하였음.
- 현재 주택, 온실, 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, 복구비의 90%까지 지급해 오던 풍수해보험이 오는 4월부터 보험료율을 7%~18%까지 인하하고 주택 침수보험금은 대폭 인상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.
 - 주택의 경우,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침수보험금을 2배로 인상할 예정임.
 - 또한,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차원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료 비율은 현행 68%에서 81%로 상향 조정하고, 온실·축사의 보험료율을 18%와 7.7%로 각각 인하하기로 함.
-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 동안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료 인하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,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 대신에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침수보험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힘.
- 한편, '0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은 재고자산의 범위, 부보계약 등 용어의 재검토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업시행 시기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.
- 이번에 의결된 '09년 풍수해보험사업계획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, 소방방재청과 보험사업자간 사업약정서 체결 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임.

(풍수해보험 온실·축사보험료 인하, 침수보험금 대폭 인상,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, 2/18)